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4월 9일(수)

#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2월중 도매재고, 전월비 0.5% 증가
- 2) 뉴욕주, 갑부 상속세 인상으로 사망시 재산의 164% 세금 징수
- 3) 미 8개 대형은행, 680억 달러 추가자본 확충해야

#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OECD 경기선행지수, 선진국 '성장' 신흥국 '침체'
- 2) WTO, 세계 무역 규모 성장 부진 경고
- 3) 프랑스, 경제 회생 안간힘 “세금·인건비 줄이겠다”

#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윈도XP 중단, 상당수 업체 보안 취약
- 2) 토요타, 전 세계 639만대 차량 리콜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2월중 도매재고, 전월비 0.5% 증가

- 지난 9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지난 2월중 도매재고가 전월대비 0.50% 증가했다고 발표
  - 이는 시장 전망치인 0.50% 증가와 부합, 1월 수정치 0.80% 증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결과
-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지난 겨울 혹한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
  - 재고가 적당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상품을 확보를 늘린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해석
- 한편, 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지나치게 재고량을 많이 늘린 후 신규 주문이 줄어들어 이를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

### 2) 뉴욕주, 갑부 상속세 인상으로 사망시 재산의 164% 세금 징수

- 지난 8일(현지시간) CNBC는 뉴욕 주정부의 상속세 인상으로 인해 부자들은 사망시 일부 재산에 대해 무려 164%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
  - 뉴욕 주는 현재까지 상속 재산이 1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상속세를 적용해 왔지만, 금년부터 재산 기준을 206만 2천 달러, 2017년까지 500만 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
  - CNBC는 표면적으로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보이지만, 실제로는 연방 세금에 대한 일부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부자들의 상속세는 오히려 크게 오를 것이라고 지적

- 한편, 뉴욕주 회계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단체들은 이와 같은 뉴욕주의 상속세 제도의 폐지를 주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, 뉴욕 주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

### 3) 미 8개 대형은행, 680억 달러 추가 자본 확충해야

- 지난 8일(현지시간) FT는 미국 8개 대형은행들이 680억 달러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하도록 미 금융규정이 강화됐다고 보도
  - 미연준(Fed),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, 통화감독국(OCC) 등 3개 금융규제 당국은 8개 대형은행에는 총자산대비 기본 자기자본 비율인 ‘레버리지율’을 5%로 자회사는 6% 비율을 유지하도록 결정, 예금보험에 가입한 자회사와 지점들을 포함하면 추가 확충 규모는 950억 달러에 이름
- 전문가들은 이는 국제 기준인 바젤 3를 크게 상회,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완충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미 규제당국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
-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(BOA), 뱅크오브뉴욕멜론(BONM), 씨티그룹, 골드만삭스, JP모간, 모간스탠리, 스테이트스트리트, 웰스파고 등 8개 대형은행 지주사들은 이윤 사내유보율을 높이거나, 구조조정 또는 일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8년 1월까지 모두 680억 달러 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OECD 경기선행지수, 선진국 ‘성장’ 신흥국 ‘침체’

- 지난 8일(현지시간) WSJ은 올 하반기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지만 신흥국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
  - OECD는 이날 33개 회원국의 2월 CLI<sup>1)</sup>를 100.7로 발표
-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지수 편차가 심해 세계 경제가 당분간 불균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  - 유로존의 2월 CLI는 101.1로 전달보다 0.1포인트 개선,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100.8과 101.4, 프랑스는 100.3을 기록
  - 미국의 CLI는 1월 100.6에서 2월 100.5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점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
- 반면 신흥경제국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예측
  -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의 CLI는 99.6에서 99.4로, 인도도 1월 97.7에서 2월 97.6으로, 브라질도 98.5에서 98.3으로 하락

### 2) WTO, 세계 무역 규모 성장 부진 경고

- 지난 8일(현지시간) FT는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가 기대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했다고 보도

1) CLI (경기선행지수): OECD가 회원국의 산업활동 동향과 GDP 흐름, 통화량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매 달 발표하는 것으로 약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상에서 증가하면 경기확장, 감소하면 하강

- 당초 WTO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4.5%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지난해 세계 무역 성장률도 전망치였던 2.5%에 못 미치는 2% 내외에 그친 것으로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
- o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유로존의 취약한 회복세와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

### 3) 프랑스, 경제 희생 안간힘 “세금·인건비 줄이겠다”

- o 지난 8일(현지시간)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경제 희생을 위해 세금과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
- 프랑스 발스 총리는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,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2016년부터 기업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힘
-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동안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와 세율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옴
- o 발스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책임 협약을 구체화 한 것으로 책임 협약은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보장부담금 300억 유로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
- o 또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이 내는 세금 60억 유로도 감축, 이와 함께 법인세도 현행 33.33%에서 2020년에는 28%로 낮추겠다고 발표
- o 기업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줄여 내년부터 저소득자의 소득세 등을 줄여 50억 유로를 덜 건졌다고 밝힘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 1) 윈도XP 중단, 상당수 업체 보안 취약

- 지난 8일(현지시간) CNBC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컴퓨터 운영체제(OS) 윈도 XP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XP를 활용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해진 상태라고 보도
  - MS는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윈도XP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중단,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비롯한 각종 지원이 중단
- 전문가들은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XP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,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조만간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
- 한편, MS는 8일까지 OS 업그레이드를 마치지 못한 중소기업 고객들을 위해 7월 중반까지 일부 업데이트를 지원, 윈도8 프로와 오피스2013 제품 할인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

### 2) 토요타, 전 세계 639만대 차량 리콜

- 지난 9일(현지시간) 토요타는 27개 모델의 차량에서 발견된 5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힘
  - 회사 측은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676만 대지만 일부 모델은 두 가지 이상 결함이 함께 발견돼 실제 리콜 대상 차량은 639만 대라고 설명
- 한편,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토요타의 주가는 일본 증시에서 3.1% 하락한 것으로 전해짐